

제41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3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 현안 질의 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에 의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황 속에서 12·3 계엄 선포가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정당성도 전혀 없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란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우 유튜버가 제기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그런 음모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헌법기관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되는 등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정치적 중립기관인 경찰의 수뇌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치안을 내팽개치고 내란 세력의 동조자가 되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동원되었는지 이것 역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과 무도함으로 인해서 행정부 주요 요인들이 내란 관련자, 동조자,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직하고 탄핵되고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끊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국가적 공황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동시에 계엄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 증언 그리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또 바로잡는 것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배석한 기관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모두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한 자세로 진실을 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는 별도의 현안 보고 없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금일 회의에 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담화를 보셨겠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정상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은 국회가 쉴 수 없고 쉬어서도 안 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속히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현안 질의

(10시06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바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건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당 위원님 좌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국가 내란 사태를 맞이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여당 국회의원님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자행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발포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내란을 도모했고 그리고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당일 우리가 증인 선서를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는 합니다. 오늘 경찰을 대표해서 출석한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저질렀던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윤건영 간사님이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12·3 윤석열 내란에 깊게 관여하거나 소극적으로도 참여했던 국무 위원들과 군과 경찰 수뇌부들의 거짓말과 자기변명을 들으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 국회와 국민들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번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비상 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각각 언론을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TV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조지호, 김봉식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국수본 조사에서 조지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만났음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안가 모임에는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구속 수감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조지호, 김봉식은 국민을 벼렸습니다. 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향했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현안 질의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인 선서를 하지 않아 조지호, 김봉식에 대한 위증죄를 현재로는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제2의 조지호, 김봉식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서를 오늘을 비롯해 필요한 현안 질의 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가급적이면 비슷한 질의, 의사진행이라면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용혜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먼저 그러면 양부남 위원님 1분 정도 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지난번 현안 질의에서 답변 외에 제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12월 3일 날 동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건으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보면 두 사람은 안가에 갔다는 사실은 빼고 관저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엄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경찰청과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가 현안 질의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 순서대로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님입니다.

간단히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탄핵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실제 국회,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계엄 해제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참석을 안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당선된, 그래서 의원이 된 사람이 민주 제도의 핵심인 의회의 회의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또한 조지호 청장 거짓말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지만 관련되어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그것은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진 관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는 계엄 사건 당일 벌어진 일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녹취록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2·3·6·7 기동단에 내린 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서울청 경비지휘망, 영등포서 행사망의 무전 녹취록까지 시급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또한 계엄 사건 당일부터 익일 아침까지 서울청 경비지휘망, 영등포서 행사망의 무전 녹취록 자료를 국회가 서둘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도 국회를 기만하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국무회의 공문 말고는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유력한 내란의 공범인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부터 계엄 당시의 지시사항 그리고 4일 대통령 안가 회동의 경위와 주요 내용까지 말 그대로 뭐 하나 제출한 게 없고요. 이 정도면 행정안전부가 내란 공범을 감싸 주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료 요구를 계엄 직후부터 했었던 이상민 장관의 동선, 업추비 사용 내역, 관용차 이용 내역,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개인 핸드폰 포함한 통화 내역, 오늘

중에 반드시 의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이 계속 미루다 제출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도 조각조각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렇게 하이픈 표시가 곳곳에 되어 있고요. 특정 부분은 몇 분씩 끊겨서 지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문의를 해 보니 작성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없고 편집 안 한 지휘망 녹취록 원본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녹취 파일까지 오늘 중에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서울 영등포갑 채현일 위원님입니다.

어제 저녁 한 방송사에서 계엄 전에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찰 특수본발 보도라는 겁니다. 수사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현재 검찰 특수본은 내란의 수사권조차 없는 곳입니다. 수사의 주도권을 행사할 명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유도신문을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도 공석이 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란의 유일한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수본이 수사의 중심을 잡고 국민만 바라보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을 독려하는 당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 하셨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참석하신 차관 그리고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아주 엄중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계엄령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과 행안부장관, 행안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당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 상황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도 이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령을 수호해야 될 그런 국가기관의 책임자로서 내란 이후의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왜곡하거나 또 이렇게 게을리하는 것은 그 죄를 엄중히 2배, 3배로 더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차관과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한 것 이상으로 엄중히 답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증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 그중에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감안해서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인들이 관련돼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만이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본인들의 책임이 더 가벼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채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 특수본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와 같이 방첩사와 국수본의 서로 내통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엄중히 내란죄를 물어야 될 수사기관인 국수본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국수본 방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확인했던 바 있고 이번 내란 사태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의 본부장 이하 또 경찰청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내란죄의 주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자기의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 국민을 대신해서 촉구합니다.

지금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은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고 또 국가의 신인도가 국제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태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이 작지 않은 정부·여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규명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또 선출된 공직자로서 정당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지 현안 질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동조자 내지는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경찰청 차장 계시고 또 국수본의 관계자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엄령 발효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령 과정을 서로 통화를 통해서 공유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방해하고 또 본회의 의결 과정에 해태했던 그런 결과를, 과정을 본다면 이 역시 내란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또 혐의점들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여당 의원은 본회의장까지 와서 전체 의원들의 숫자까지 파악하고 나서 퇴장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숫자를 확인하고 15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여당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또 함께 움직였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혐의, 그런 의심이 드는 내용인데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꼭 수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진행을 마치고 바로 현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위원님 현안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고 경찰 조직의 최대 위기이자 불명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고 몇 명은 수사 대상이거나 참고인 조사도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동시에 경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민주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뚝뚝히 일선에서 직분을 다하고 있는 14만 경찰공무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공무원분들께.

이호영 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국수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차장께서 경찰 조직의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경찰이 공수처·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통해서도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죄 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어제 조지호 청장과 김봉수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A4 한 장짜리 지시서를 받았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국방부·선관위, 여기저기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다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언론이나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경찰이 이제 공수처와 공조를 통해서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 수차례 공범 혹은 종범들이 함께 혹은 따로 회합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첨보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내란수괴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가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그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가장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압수수색도 더욱 철저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란죄 혐의 유무를 빨리 가려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당연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 아니겠습니까, 직무대리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 국수본에서 아마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용혜인 위원 직무대리가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오늘 경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당당하게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에 대한 의지 정도는 밝혀 주셔야 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나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 출동할 때는 K1 소총까지 들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국회 틀어막을 때 굉장히

빠르게 출동을 했던 경찰이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망설이시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 나름대로 국수본이 철저하게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임시지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대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신변의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긴급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거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국수본에서 하여튼 철저히,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경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지를 밝히는 것조차도 경찰을 대표해서 나온 자리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참 국민들께서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오부명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경비부장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12·3 내란 사태 직전에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서울청장에게 연락받으셨지요, 직접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예.

○용혜인 위원 연락받으셨으면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기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입니다.

당시 6시 넘어서 집에 퇴근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퇴근을 하고 집 주변에 있었다가 약 7시 40분경에 서울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퇴근했나?’ 그래서 ‘예, 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라’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준비를 해서 7시 23분 정도, 그때 도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 올라갔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때 서울청장이 뭐라고 지시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경력,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을 물어보셨고 당시에는 영등포 관할의 국회의사당로에 전장연 관련한 야간 철야 경력이 4개 부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쓸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야간에 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부대 1개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용혜인 위원 계엄이란 단어는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계엄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고 활용 가능한 경력에 대한 상황을 체크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예.

○용혜인 위원 뒤에 오부명 차장님은 전화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저는 전화받은 적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전화받은 적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예.

○용혜인 위원 제가 경찰청 출입 기록이랑 서울청 출입 기록을 다 살펴봤는데 주요 간부들 대부분이 23시 전후로 청 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그날 청에 계속 계셨지요, 저녁 시간에?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21시경 나왔다가 22시경에 들어왔습니다.

○용혜인 위원 21시경 나갔다가 22시경 들어오셨다고요?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예.

○용혜인 위원 당시에 공공안전차장·경비부장·경비과장·정보부장, 국회를 틀어막고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휘체계에 있는 분들이 미리미리 들어와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9시에 나갔다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실 정말 뉴스를 보고 아신 게 맞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예.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조지호 청장,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안가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실제로 국회를 틀어막고 경력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주진우 부장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서울청에서 지휘망으로 ‘국회를 막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확인한 것이 오늘 주진우 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경찰청장·서울청장 딱 2명만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안가 회동 이후에 두 청장이 계엄을 사전에 대비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오늘 증언이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경찰 간부들께도 말씀드리는 데요. 지난 국방위에서 군이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서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공익제보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대한 신뢰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45년 전, 1979년 12월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어차피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국민들 앞에 반드시 증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청 차장님이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경찰청장·서울청장, 대한민국 치안의 책임자, 경찰 조직 지휘부 최고위층 2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경찰’ 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권력의 수족이 됐다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경찰 현장을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 그렇게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대로 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도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와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계엄군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부역자 역할을 한 거지요. 비겁하고 불공정한 경찰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경찰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무원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시를 따르고 삼청동 안가에 가서 A4 계엄지시서를 받고 와서 실행한 거, 그거는 온당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그걸 따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안타까운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따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비상계엄 있고 나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지휘부 회의 때 처음 경찰청장을 대면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니 법적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채현일 위원** 몇 시 정도 되나요, 그때가 시간대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24시, 그러니까 00시입니다.

○**채현일 위원** 24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때 지휘부의……

○**채현일 위원**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나요, 그러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계엄 사실조차도 집에서 택시 타고 출근하면서 지휘

부 회의한다고 할 때 그때 인터넷 보고 알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잠깐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안전계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에 경비안전계장이 주로 무전을 전파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어디서 했나요, 주로? 어디에서 그런 상황을 지시하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저희 8층, 서울경찰청……

○**채현일 위원** 상황실이지요? 상황실에는 누구누구 있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최초 상황 이후에 한 분씩 한 분씩 오셨습니다.

○**채현일 위원** 누구누구 오셨었어요, 서울청장하고 또?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다음에 차장님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셨고요.

○**채현일 위원** 예?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차장님들이 순차적으로 도착하셨고요.

○**채현일 위원** 몇 명이나 있었나요, 그 안에?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이제 수사차장님은 제가 봬었고요, 좀 늦게 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안차장님은 그보다 조금 일찍 오셨고…….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우리 계장님은?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저는 TV에서 봤는데요. 제가 본 시점이 라이브였는지, 뒷부분만 봤습니다. 라이브였는지 아니면 리플레이였는지는…….

○**채현일 위원** 그런데 그 대국민답화, 포고령을 듣고 나서 이게 위헌적인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식을 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왜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어떠한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건지…….

○**채현일 위원**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진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지시하고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합법·불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대 나오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법학 공부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헌법 77조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전제하에—국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고 계엄군 진입을 협조하고 이거는 딱 내란죄예요,

내란죄. 내란죄의 부화수행(附和隨行), 죄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위법한 명령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처음에 10시 47분에 국회 봉쇄, 출입금지를 조치를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때 누가 지시를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김봉식 서울청장님께서……

○채현일 위원 김봉식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한 건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저한테 말씀하셔서 무전을 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바로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지시를 하신……

○채현일 위원 그 당시 서울청장이 A4 용지의 계엄지시서를 갖고 있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뭐라고 그러던가요, 서울청장님이?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정확한 단어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단 다 막으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채현일 위원 막아라?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채현일 위원 뭘 막으라는 뜻이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진입을 막아라.

○채현일 위원 누굴 막으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채현일 위원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전원 차단하라 그리고 경찰 버스로 차벽 설치하고 경찰서에 있는 행정부 차량도 동원해라, 견인차도 활용해라 그렇게 지시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본인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게 합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가요, 그냥?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모경종 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경찰을 다 망치는 거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계엄군이 진입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 달라고 한 것은 어디로부터 연락을 받았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채현일 위원** 서울청장님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청장님께서 군인들 와 있으면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계엄 해제가 안 될 경우에 국회의원들 수방사 지하벙커나 구금시설로 옮기라는 지시도 미리 받았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병커에서, 상황실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전혀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 그대로 서 있어 보세요.

안전계장, 인사 한번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지금 이 사태를 파악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답변석에 들어서면서 어떤 자세로 인사한지 아세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릴까요?

똑바로 하세요!

제장께서는 상관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과 헌법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르고 그 자리 갔어요? 상관의 명령이면 국회의원도 짓밟아 버리고 국회 침입하는 데 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후에 알았어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안 했어요? 사후에 알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이야기를 청장이 할 때 한 번이라도 이게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위법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위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청장님께서 지휘부와 논의하고 내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상관의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당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앉아 주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오늘 답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오늘의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집행했던 당사자들이 그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아직 까지 모른다고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요? 그걸 지금 현안 질의에서 할 답변입니까?

최현석 권한대행님,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의 담화 보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제가 여기서……

○**정춘생 위원** 지난번에 사과할 때는, 사과라고 하면서 할 때는 1분 하더니 어제는 시종일관 변명, 본인 합리화, 문제가 없다. 여전히 야당 탓으로, 범죄자 집단은 척결해야겠고,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뭐라고요?

○**정춘생 위원** 잠깐만요.

‘국회의 관계자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들으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그러면 윤석열의 지시 없어도, 없이 경찰에서는 국회를 출입 통제한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렇지 않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계엄 당시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원천 전원 차단하세요’, 11시 37분 ‘현 시각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후 11시 54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차단 명령을 합니다.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는데 왜 한 겁니까? 분명하게 답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당시에……

○**정춘생 위원** 윤석열이 지시한 것 맞지요? 그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

시에 서울청장이 저희들하고 그 당시 상황들을 같이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아니면 언론 거기서 나온 것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서울청장께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일체의 그런 정보 공유를 안 했습니다.

○정춘생 위원 사실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집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책임을 지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안가, 안전가옥으로 부릅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A4 용지 한 장에 국회, 중앙선관위, MBC,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들을 일일이 적어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춘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위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사실 저도 계엄이라고 비상이 났다는 것을 듣고 좀 많이…… 이게 과연……

○정춘생 위원 아니, 이런 지시에 대해서 어떤 위헌·위법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당시 상황에서, 저희는 A4 용지도 이런 것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끼리도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그 계엄령에 대한 그 무게감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제대로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공권력을 집행하는 단위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위헌·위법한 지시가 있어도 아무런 법적 판단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 하셔서 향후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어제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심하게 편집되고 일부 누락됐다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취록 5페이지를 보시면 120번부터 121번·122번, 서울경찰청이 직접 교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경력들에게 서울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두 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 공란입니다.

지시 내용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란으로 제출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위원님, 저도 그 녹취록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하고……

○정춘생 위원 확인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정춘생 위원 이것은 어떤 지시와 어떤 이행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2번부터 136번까지 다 공란이에요. 이게 왜 다 공란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그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왔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녹취록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춘생 위원 추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1페이지 249번부터 250, 0시 10분, 0시 11분 이게 다 공란이에요. 이때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시점입니다. 그런데 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란입니다. 그리고 255번부터 259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란이에요. 이게 해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이 있었고 내용은 공란으로 제출했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4번, 0시 16분 기동본부 경비과장이, 또 무선 내용인데 ‘영등포서 관내 국회로 이동하겠습니다’, 경력들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 전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나와 보세요.

0시 13분 무선을 통해서 ‘경력은 현재 얼마만큼 도착했나요?’ 묻습니다. 그리고 8기동단 지휘요원이 ‘알겠습니다. 한 10분 후 정도면 2개 기동대 도착할 예정입니다’, 추가 배치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경력이 추가 배치됩니까,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추가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23시 40분 정도에 퇴근했던 직원들을 다시 부대에서 출발을 시켰었고요. 그 부대들이 도착했느냐 물은 겁니다.

○정춘생 위원 아니, 왜 그것을 국회로 도착시키냐고요. 왜 이동시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국회와 대통령실 주변을 수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서울청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통신망을 분석해 보고 당일 상황을 봤을 때 경찰 경력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게 사실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어제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는 거짓이네요? 막은 적이 없다고

대국민답화를 했잖아요?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어쨌든 의원님들……

○**윤건영 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당일 12월 3일 날 경찰이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 출입들을 막은 게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윤건영 위원** 맞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윤건영 위원** 대통령이 그냥 온 국민 앞에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이성민 경장, 김병훈 경사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민 경장은 몇 시에 삼청동으로 갔고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답변하십시오.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1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출발했고요. 정확한 도착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삼청동 안가 앞에서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삼청동 안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금융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윤건영 위원** 금융연수원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네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어쨌든, 아니, 지금……

금융연수원에서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대충 어림짐작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위성곤 위원** 거짓말이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억나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김병훈……

○**위성곤 위원** 수행의 기본 업무가 일정 체크인데, 시간 체크인데……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 수행 업무가 기본적으로 일정 체크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건데……

○**위원장 신정훈** 자, 윤건영 위원님이 주질의를 하고 나서 또 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김병훈 경사한테도 묻겠습니다.

삼청동 금융연수원 갔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몇 분 동안 머물렀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한 5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건영 위원 다시 이성민 경장한테 묻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어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같이 나왔습니까, 따로따로 나왔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옆에 김병훈 경사 답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저는 청사에서 청장님 모시고 따로 갔습니다.

○윤건영 위원 오케이.

들어가세요.

남부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선관위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22시 41분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이외에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딱 그 지시만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남부청장은 과천서장한테 총기를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그런 지시 안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과천서장 나오세요.

과천서 경력들이 K1 소총을 들고 선관위로 출동을 했습니다. K1 소총 휴대는 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 그런 판단을 내렸지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제가 최초로 22시 52분경에 도경 경비과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관위 빨리……

○윤건영 위원 아니, 왜 K1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냐고 묻잖아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그래서 지금 이 경과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윤건영 위원 짧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예.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선관위 어떤 상황이냐, 왜 선관위를 경계를 해야 되냐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른다, 빨리 지시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경비과장은 통해서 초동대응팀이랑 지역경찰, 형사, 교통에 출동 지시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K1 소총을 휴대하고 실탄을 들고 나가라는 게 왜 이렇게……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예, 그랬는데 초동대응팀장이 그날 상황관리관입니다. 그분께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경계작전 규정에 보면 대침투작전·대테러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건영 위원 아니, 왜 K1 소총과 실탄을 들고 가게 했냐고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그걸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그랬는데 담당한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당이 생각했을 때 준전시 상태고 사회 혼란 상태니까 제일 유추할 수 있는 게……

○윤건영 위원 여보세요, 서장님.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예.

○윤건영 위원 서장님, 그때 뉴스 안 봤어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지금 그때 뉴스……

○윤건영 위원 그게 준전시 상태예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뉴스에……

○윤건영 위원 12월 3일이 준전시 상태고 내란 사태예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아닙니다, 위원님.

○윤건영 위원 그런데 총기를 왜 들고 보냅니까, 민간인한테?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그래서 이제……

○윤건영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통상 사무실로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2월 3일 날 말씀……

○윤건영 위원 아니요, 평상시에.

짧게 답변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7시 50분 전후입니다.

○윤건영 위원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라서 9시까지 출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이 한 달에 열 번가량 지각했다면 처벌받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무단결근으로 처벌받습니다, 무단 지각의 경우에.

○윤건영 위원 제대로 된 정상적 공무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희 의원실에 제보 들어온 게 11월 한 달 동안 윤석열 씨가 약 열 번 동안 지각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경호처가 경찰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경호 요청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윤건영 위원 매일 아침마다 요청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출퇴근, 움직이실 때마다 계속 경호 요청……

○윤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매일 아침 9시가 출근시간인데 그 시간에 경호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요 9시에 가짜 경호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때는 11시, 어쩔 때는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차량이 출발합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교통 관리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관저에서 나오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경호를 하고……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윤건영 위원 사실 확인이 어렵기는 왜 어려워요? 경찰들이 가짜 경호차량 출발했다라는 음어까지 다 쓰고 있다던데. 그 음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게 위장……

○윤건영 위원 아니, 음어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윤건영 위원 위장경호 음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 읊어는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바로 가짜 경호 아닙니까?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그게 뭡니까? 경찰이 왜 그런 것을 경호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위장경호가 경호기법의 하나인데……

○윤건영 위원 가짜 출근을 도와주는 게 경호기법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가짜 출근인지 잘 모릅니다.

○윤건영 위원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완전히 차량에 누가 탑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관저에서 나오면 차량만 바로 나오고 또 대통령실 들어갈 때도 바깥의 문까지만 에스코트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건영 위원 차장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란 사건에서 경찰이 망이나 봐 주는 겁니다. 국회 봉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면 내란의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짜 출근 차량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요. 한 달에 열 번씩 가짜 출근을 하는데 위장경호라니요. 위장경호는 경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밥 먹듯이 지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에 본회의 때도 경찰이 이 상황을 제대로……

○모경종 위원 본회의 때 무슨 사과를 하셨습니까? 본회의 때 다른 장관들 다 일어나 가지고 국무위원들 다 허리 숙여서 국민께 사과할 때 직무대행 그때 허리 숙여서 사과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때……

○모경종 위원 안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모경종 위원 고개를 언제 숙이셨습니까?

저는 경찰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해야 되는 일반 국민입니다.

직무대행, 지금 일어나서 국민께 허리 숙여서 다시 한번 경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과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은 치안 이런 부분 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경찰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치안을 군인들에게 기대니까? 그게 군인 역할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공권력 가지고 있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내란에 동조하면 어떡합니까?

직무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경찰이 왜 국회에 투입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에 투입된 것은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청장 지시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확인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문제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최창복 경비안전계장 나오세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제가 무전기록을 받아 보니까 수많은 무전에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까, 그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것은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상명하복이니까 그랬다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상명하복만 따지고 법과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조폭이지 경찰입니까? 안 그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부족한 점이 있던 게 아니라 다 부족했습니다.

경찰로서 법 그리고 헌법,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명령을 받았다고 그것을 따르면, 그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다 따르면 그게 어떻게 경찰입니까? 조폭이지.

들어가세요.

이성민 경장 나오세요. 경찰청장 수행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청 이성민 경장 나오세요.

경찰청장을 얼마나 모셨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약 2년 정도 모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2년 동안 많이 가까워지셨겠네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은 그 가까운 친분이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법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까? 후자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모경종 위원** 친분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당일 날 금융연수원을 가셨다 했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예.

○**모경종 위원** 안전가옥이 아니라 금융연수원입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제가 운행한 곳은 금융연수원입니다.

○**모경종 위원** 금융연수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차에 승차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때 알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차에 승차해 가지고 금융연수원으로 가자, 이유는 말씀 안 하셨겠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예.

○**모경종 위원**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안 하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통화 안 하고 끝나고 나와서도 통화 안 하던가요?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경종 위원** 금융연수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경찰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공관으로 가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공관에 가면서 서로 대화 한마디도 안 나눴습니까?

○**경찰청비서실 이성민**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은 친분을 우선시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고 정상화할 때입니다.

들어가세요.

김병훈 경사 나오세요.

김병훈 경사는 서울경찰청장 얼마나 모셨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약 1년 정도 모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친분을 우선시할 때입니까, 아니면 법과 국민을 위한 마음이 먼저여야 될 때입니까? 후자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서울경찰청장은 금융연수원에서 나오고 나서 또는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하던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셨습니다.

○모경종 위원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통화 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경종 위원 지시도 안 하던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던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비서실 김병훈 저는 거기 하차시켜 드리고 복귀해서 그 이후는 알지 못합니다.

○모경종 위원 들어가십시오.

경기남부경찰청장님.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모경종 위원 이 사태를 염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보내셨지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경력을 보내면서 뭐라고 지시하면서 보냈습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찰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전달했고 국가 중요기관을 보호하라는 것 같으니 관계관과 협의해서 관계자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보호하라는 조치였다 했지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습니까, 도대체?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몇 명이라는 건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모경종 위원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그것까지는 그 당시에 판단을 못 했고요. 경찰서장에게 지시를 했고 경찰서장이 가용 경력을 동원해서 경력을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총구를 또는 경찰 경력의 보호 방향을 완전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위원님, 송구합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계엄 관련해 전후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중요기관의 안전 조치, 이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선관위에 그 이후에 군인들이 투입됐지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보고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군인 투입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세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제가……

○모경종 위원 그 군인이 계엄군인지, 무슨 명령을 합당하게 받고 왔는지, 법적으로 타당한 임무 수행을 하는 건지 확인했어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위원님, 송구합니다. 그 과천……

○모경종 위원 방금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야기대로라면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력이 투입됐다면 그런 군 병력들도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왔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거나 확인이 안 되면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위원님, 당시 상황으로는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했고 경찰서장이 도착해서 군이 먼저 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 상식으로는 계엄 상황에서는 군이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모경종 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의 김성희입니다.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질문이 좀 맥락이 없고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사무총장님 이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어서 실소가 터지는 대목에서는 웃으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정선거 신도이신 윤석열 대통령, 군을 보내서 선관위를 짓밟고 조직에…… 사실 계엄이 성공했으면 선관위라는 조직이 남아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상황 중에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있었는데요. 사무총장님, 담화 내용 중 선관위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작년에 있었던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내용을 쭉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와 같은 과정이 지금 금년 1월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이행 상황을 국정원과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참관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부 점검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것을 군이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PPT 보시고 이들의 신앙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최근에 있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유튜버들의 주장인데요.

부정선거 규명에 큰 문제가 없다, 이미지파일 카피 기법만으로 이미……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은 서버 있지요? 그게 원격 조정으로 복사가 끝났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어지럽네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정보보호과장님하고 정보정책과 담당 사무관님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되게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당일 계엄군이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 갔지요? 그리고 나서 그 서버의 내용을 원격 조종해서 복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무관님, 민간에서 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주로 이런 전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어제 가서 서버 봤는데 시리얼 넘버랑 몇 가지 정보가 있기는 하던데 그런 정보를 사진을 찍으면 원격 조종해서 복사가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봐야 되는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데 여쭤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버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사진 찍은 서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서버 안에는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사용 할 수 있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예,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현재 불가능합니다.

○김성희 위원 왜 불가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폐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폐쇄망이라는 말도 어려워서 지금 신도들이 원격 조정 복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망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지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쉽게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예, 인터넷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대통령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지요.

북한이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북한이 해킹을 했습니까, 선관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한 혼적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대통령은 해킹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지요.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저희가 권한쟁의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응했듯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행정기관의 일종인 국정원의 소위 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 보안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저희가 받게 된 겁니다.

○**김성희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국가기관이고 국정원이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팀을 만들어서 보안 사항들을 점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킹 시도를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사무관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정원이 해킹을 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국정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들어오지…… 안에 있는 폐쇄망 서버 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컴퓨터를 쓰는 게 인터넷 연결되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 옆에 별도의 서버를 다루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려면 계엄군이 장비를 노린 건데 과장님, 장비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개괄적으로 공개 안 한 부분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보호과장 장병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저희 주요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선거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뭐지요?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보호과장 장병호** 저희는 선거 관련된 명부 관리라든지……

○**김성희 위원** 명부가 주로 있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보호과장 장병호** 예, 정치자금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걱정을 하냐면, PPT 두 번째 것 좀 보여 주실까요?

‘윤 지시로 선관위 서브……’, 서버지요. 그런데 ‘서브 확보’를 하셨는데 ‘계엄 사유는 부정선거 수사’고 지금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인물들 파악해서 민주당이 발칵’ 됐고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끝났다’고 나오는데 사무관님, 포렌식이 그때 계엄군이 들어와서 했나요? 그 로그 기록 이런 게 다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예,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포렌식 그런 것은 시도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마이크를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시도도 없었지요?

다음 PPT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1분 내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파워 끄면 증거 없애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전산적으로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정책과 조승우 저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성희 위원 다음 것을 보십시오.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한 6개월쯤 된 건데요. 보수 시민들이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했다,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 이별이다, 지도자 자격을 운운하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유튜브를 보고 '이것 내가 꼭 지금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됐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국 군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했던 사이비종교의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무총장님, 지금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아마 인터넷을 아는 일반인 중에서 초보적인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와 같은 괴담이 계속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에서는 그 여론에 대해서 관리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은 선관위 서버 문제가 있고 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선관위 서버 자체를 임의적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해 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부정선거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언론 쪽에서는 지금 실물 투표를 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선거시스템에 의한 전산 장비는 의미가 없다……

○위원장 신정훈 좋아요. 좋아요.

총장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알아들었고 그 후에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괴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관련한

부분을 지금 논의해서 서버의 내용이 어떻고……

○위원장 신정훈 아니, 서버의 운영이라든가 관리체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지 서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신속하니 결론을 내 가지고요 국민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18시부터 23시 26분까지 만찬 하시고 자가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8시에 나가서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요……

○양부남 위원 18시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지인 모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몇 시까지 지인 모임 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고향 사람들 모임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리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자가, 집에는 한 22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요 그리고 집에 쭉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계엄 선포된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계엄 선포는 친구가 전화가 와 가지고요 집에 갔더니 뉴스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 믿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경무과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 지휘부 회의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차장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경무과장이. 그래서 출근하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인터넷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장이 안가 갔다 온 뒤로 차장에게 다른 어떤 언질이 없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전화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깡통 출근할 때 말이에요, 음어를 뭐라고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깡통 출근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음어에 '위장제대'라는 말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음어를 뭐라고 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장제대'라는 음어는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위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대.

○양부남 위원 제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제’가 무슨 제 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로……

○양부남 위원 위장제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이러한 음어를 최초에 언제 알았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이번에 지금 이 상황이 불거지고 나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저도……

○양부남 위원 그 전에는 이러한 음어를 몰랐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교통 그쪽 안에서……

○양부남 위원 이러한 음어가 유행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벌어져서 알았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 음어가 있다는 것은 어제 그쯤 알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한 달에 열 번 정도씩 이런 위장제대를 한다는 것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현재 합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엊그저께도 열심히 수사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지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이게 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든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하든 결국 이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장을 집행하려 갔을 때 최악의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현재 윤석열 씨가 업무에 복귀까지 한 상황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총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가정해서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부남 위원 아니, 가정해서 모든 것을 예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가 영장을 집행하는……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모든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병 확보 위해서 노력을 할……

○양부남 위원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만약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맞서서 싸울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일어나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양부남 위원** 설득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충분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남부경찰청장, 무기 휴대는 과천서장이 전결했다 이거지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당시에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양부남 위원** 실탄 휴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그렇습니다. 전혀 못 듣고 6일 날 금요일에 경비과장이 그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 보고받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천서장에게 묻겠습니다.

통상 경찰관들에게 실탄 배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 배포하는 겁니까?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동대응팀 작전 훈련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침투 작전, 대테러 작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게 대침투 작전도 아니고 대테러 작전도 아니지요, 이번에?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일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양부남 위원** 본인의 판단이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상황이 급박하면 발포까지 할 생각이었습니까?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아닙니다. 제가 그때 총기를 나눠 줄 때 그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이나 국민에 대해서 일체 물리적 행사를 금지한다고 조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통을 별도 분리 보관을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발포할 생각은 없었다?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초동대응팀 휴대장비로 가지고 나갔던 게 전부입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엊그저께 담화한 내용 보면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보안을 담당한 회사가 너무 영세한 회사다 그리고 자기들이 국정원에서 해킹을 해 보니까 방화벽도 없더라, 데이터 조작도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번호도 12345더라, 혀접하더라.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의 보안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인을 보낸 이유가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첫 번째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에 통합 관제 외주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업체는 기본적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및 소프트 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13개밖에 없는 업체라서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의 그런 업체로 따로 구분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영세업체가 아니라 이거지요? 충분한 보안 전문업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규모만, 회사 규모만 영세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부남 위원** 능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전문 서비스, 전문 보안 업체로서는 우수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도 그 회사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은 모두 다 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압수수색 당한 적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채용 비리 사건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컴퓨터 PC나 이런 부분들……

○**양부남 위원** 충분히 응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기동 장관직무대행!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다시 불러 드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대통령 담화에서는 있었습니다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고 차관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분명한 입장은 밝혀셔야지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윤석열 씨지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비겁하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인 국무위원들의 그 비겁한 자기변명과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위협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내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내란 공모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차관은 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회의록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민 전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 기억에는 아마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는 회의록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없는 회의록을 어떻게 요청하냐고요! 회의록이 있다고 전제하고 요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회의록이 없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회의록의 형식·요건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때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내란 공모 의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국수본에서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알지 못한다고 얘기만 하지 마세요. 국수본이 지금 진행되는 거를 직무대행께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 독립성이……

○**박정현 위원**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입건 상태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 입건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입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국수본에서 하는 것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공모자로 입건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수사하면서 국수본에서 조만간 브리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자꾸 피해 가시면 경찰이 더 이상 내란 공모범이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국수본을 통해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경찰의 신뢰가 회복되는지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낸 것은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어요. 그것 맞습니까?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경찰은 지금 700여 명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도왔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지금 경찰이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경찰이 한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평소에는 크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십니까? 경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경찰관들이 일부 그 자리를 안내한 것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본인이 계엄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면피용 아닙니까? 지금 앞서 모경종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창복 안전계장은.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게……

○**박정현 위원** 본인이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합니까?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2월 3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을 지키겠다고 국회 주변을 에워쌌던 국민들에게는 전혀 길을 열어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온 계엄군에게는 길을 열어 줍니까? 그게 지금 경찰이 해야 될 태도입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 과정에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맞습니까? 그게 경찰의 입장입니까? 대답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시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내용을 왜 몰라요! 내용을 왜 모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경찰 간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주어지는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들어가세요.

이번 사태를 보면 실제로 국민들의 목숨을, 생명을,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들이 내란수괴와 어떻게 작당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부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국수본이 그냥 이 사건을 조사한다, 명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 내부의 내란 방조자나 공모자들을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해서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종전 양부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문제 됐었던 보안 업체 부분이 2023년까지 업무를 수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새로운 업체로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계속 수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오류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직무대리 차장님께 요즘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걱정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검찰과 특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계엄 전 방첩사와 국수본 연락 정황이 포착된 것처럼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바로 논의된 것처럼 되고 팩트와 관련 없이 이게 언론에 나와서, 국수본에서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방첩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방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측과 경찰 수사본부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국수본에서는 전연 그런 연락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국수본 발표대로 하는 것 같고요. 일부 그 당시에 실무자끼리 아마 연락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거는 차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감사·감찰 기능을 통해서?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기능에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요 앞으로 이게 사건이, 수사라는 것은 본질과, 증거에 입각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쪽으로 해야지 일부 내용을 가지고 수사 양대……

국수본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걸 언론에 이렇게 흘리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수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는 엄격히 수사기관 간에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수본과 이야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아무튼 수사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털어내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수사 시작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못 받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엄격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그다음에 저번에 서울청장님하고 본청장님도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지시를 할 때 무전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핸드폰으로 할 때도 있고 무전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은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핸드폰도 일부 연락을 했고요. 무전도 했는데……

○한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반 전화로 이야기하고 지시를 일반 전화로 했다. 통상 이런 경우 서울청이나 본청, 이거 할 때 일반적으로 무전보다는 일반 전화로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그런 걸 확인해서 국회로 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게 국수본에서 압수를, 지금 휴대전화를 서울청장하고 본 청장한테……

○한병도 위원 압수를 했으니까요. 그런 휴대 내역들을 저희 국회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국정조사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 협력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비부장님!

잠깐 시간 좀 한번 멈춰 보세요.

경비부장님, 오후에 본청장하고 계속 같이 있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아닙니다. 저는……

○한병도 위원 별도로 있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퇴근을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아니, 아니, 이후에.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본청장님은 있지 않고요. 저는……

○한병도 위원 이후에 와서 23시 직전부터 본청장과 어떻게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저희는 본청장님하고 있지 않고 본청장님은 본청에 계시고 저는 서울청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서울청장하고 계속 같이 있었나요, 동선이?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서울청장님의 전화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지휘센터에서……

○한병도 위원 그러면 상황을 서울청장과 옆에 있으면서 서울청장이 직접 바로바로 지시하는 걸, 경비 라인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그날은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 서울청장이 아까 경비계장한테 직접 지시했나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부장 주진우 예.

○한병도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경비계장은 모든 지시를…… 그냥 거기서 답, 짚으니까요. 서울청장에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서울청장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라고 하시면 제가 무전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향후 대응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장님, 정보망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떤……

○한병도 위원 보통 많이 쓰지는 않는데 서울청에 정보라인으로 주재하는 망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정보망……

○한병도 위원 모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병도 위원 예, 정보망 따로 논의하는 게 있는데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정보망이 따로 있다고……

○한병도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서 정보 관련된 내용……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따로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따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리해서 그때 어떤 내용과 시계열별로 됐는지 국회로 정리해서 정보망 관련된 걸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그리고, 아이고 이거 시간이……

사무총장님,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발표를 보면서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의 이 정신,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이것이, 굉장히 인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 상태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그런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존재 차이를, 대통령이, 만약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런 걸 조정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헌법기관마저 부정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사회가 이거 아주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22대 총선,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확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 했고 22대 총선은 제가 주관해서 치른 선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부정선거와 관련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장만 있었지요.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하여튼 부정선거의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이게 사회현상이에요. 내 편이 이기면 그건 제대로 된 선거고 내 편이 지면 그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을 대한민국 행정수반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번에 유포자 이런 것들을 처벌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저도 답답하고 선관위도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법적으로도 향후 제도개선하는 데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엄격한 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개선을 위해서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의 자유방해죄 부분 안에 그 법률 구성요건에서 흡결이 있어서 지금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전투표 조작가능성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그 행위는 민주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법 내용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때는 별도의 그 구성요건으로 설정을 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법안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그게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내란 사태로 국민들이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 주범은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과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영상자료를 보면)

12·12 사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 정당행위라고 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시켜서 했다, 몰라서 했다 이런 변명은 내란죄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 공직자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맞닥뜨렸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권력 찬탈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간·하위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 경찰 조직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부당하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한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경찰청장 직무대행,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성곤 위원** 전부 다 공모자예요. 이 사건에서 법무부 감찰관 그분 한 분만 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치안을 담당하

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승진이나 죽고 권력이나 죽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권력의 주구였던 경찰이 반성을 해야 돼요.

묻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맞다, 틀리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맞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맞다, 틀리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맞다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법하지요? 맞다, 틀리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이다. 맞다, 틀리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비상사태는 위헌이다. 맞다, 틀리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위법성하고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위성곤 위원** 맞다, 틀리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맞은 건 아니고 조금 부분은 위헌성이 아닐 부분도 있다?

답변 잘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저는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경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이다. 맞다, 틀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청장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맞지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잠깐 나와 주세요.

경비안전계장,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맞다, 틀리다?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맞는데 그렇게 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위성곤 위원** 앞서 서울청 상황실에 서울청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누가

있었지요? 기억나는 사람 얘기하세요, 전부.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서울청장님 계셨고요 그리고 차장님 세 분이 동시에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비부장·정보부장·수사부장 그리고 교통부장님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번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돼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위성곤 위원** 들어가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일 새벽 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결심실이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여기에 정진석 대통령 실장 그리고 최병옥 안보실 국방비서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국수본에서 하는 거라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체포·구금해서 내란 가담죄로 수사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국수본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지금 그 사실을 은폐하고 내부에서 조작하고 다시 내란음모 수괴를 선동해서 이런 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체포·구금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대한민국 경찰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경찰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불법 쿠데타와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조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계속.....

○**이광희 위원** 경찰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직된 조직문화에 또 그런.....

○**이광희 위원** 경직된 게 아니고요 원칙이 없었던 거지요. 경찰이 지켜야 될 대상이 누

구였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민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국회경비대는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국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헌법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경찰은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광희 위원 국민의 대표인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 그다음 일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호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이광희 위원 헬기 내리는 군인들을 보호하고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들을, 공수부대를 안내하고 여기 보면 길 안내했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이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뭐……

○이광희 위원 더 속상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지금 경찰에서 주신 이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단 한 줄도, 단 한 순간도, 그 어떤 누구도 헌법기관인 국회를 보호하거나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된다고 왜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게 더 참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휘망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을 텐데 단 한 명도……

왜 그래야 되지요? 왜 국회의원을, 왜 국회를 보호하지 않고 군인들을 안내해야 되나고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은 정권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까?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주요 임무였습니까? 더 군다나 경찰청장이 쿠데타 모의를 함께 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여섯 차례나 전화를 한 게 드러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경찰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포고령과 명령이 있어서 따랐다고 하는데 경찰 내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합법성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 명령이 합법적이었다, 아니면 이거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를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휘부 회의할 때 검토해 보라 이런……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군인이 진입하도록 안내 조치할 때에 합법성, 합법적인 거 누가 제기한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보고받지 못한 게 아니라 없으셨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의 녹취록 그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원칙의 문제라고. 왜 국가공무원이 돼야 되는지, 왜 경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헌법적 권한인, 헌법 제77조에 있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회의를 막았어요. 헌법에 대한 권리와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도대체 지금부터 어떤 경찰에게 어떤 경찰이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지도부가 얼마나 중대한 실수와 판단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다음 경찰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지요.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비상사태나 긴급 상황이 터진다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수행하기 위한 헌법적, 또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목조목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어떠한 체포도 할 수 없고 막지도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짐을 경찰 전반에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임시국회 소집권을 국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국회가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회의 참석을 막는 것, 그건 어떠한 권한도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임시회를 열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을 막은 상태예요, 경찰이.

세 번째는 비상사태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유지가 된다는 게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비상사태 때 군인은 들여보내고 국회의원은 막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번째, 긴급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국회가 들어와서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막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내부에 어떠한 매뉴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렇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을 아주 쇄신을 할……
○이광희 위원 쇄신도 해야 되고 매뉴얼도 만들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방금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 경찰 승진시험에 반영하기는 늦었는데 현법 과목을 경찰 승진시험 과목에 포함하는 것 어렵습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주장을 했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경찰 선배로서 저는 이번 계엄을 대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안위 질의 때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상사 복이 정말 없다. 역사상 최악의 폭군, 암군, 혼군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경찰국 강행을 밀어붙인 게 이번 계엄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경찰을 손아귀에 꽉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경찰의 대응에도 그게 효과를 미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다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 청장·서울청장 그리고 적어도 이 앞줄에 앉아 계신 간부들 정도는 독자적인 법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2014년도 정보국장으로 재직 시절에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우병우였습니다. 우병우가 전화해 가지고, 제가 정보국장이었는데 검찰에 대한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중지하라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는데 제가 그걸 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위법하고 또 부당하다. 위법까지는 모르겠고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경찰 수뇌부를 불러 가지고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김봉식 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 면전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나와서 실제로 김봉식 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이 여러 가지 지시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지시는 뭐냐 하면 경찰의 국회 통제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헌법 77조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게 이번 경찰의 가장 원초적인 죄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 수뇌부들이 회의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

○이상식 위원 한 20분 했다고 돼 있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 과정에서 누군가라도 무슨 반대 의견, ‘청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었지요?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몇 분의 장관이 반대 의견은 개진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장님, 보십시오. 지금 방첩사 영관급 장교들, 영관급입니다. 그렇지요? 법무참모실의 이런 분들이 방첩사령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들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한밤중에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감찰관 이분이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것은 위헌·위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사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의 치안정감·치안감들이 방첩사의 영관급 장교보다 못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에는 의견을 개진할 상황은 아니고요. 청장이 들어와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이상식 위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장님, 바로 나갔으면 남아 있는 수뇌부는 그러면 뭘 했습니까? 남아 있는 수뇌부들이 ‘아, 우리 청장님이 되게 압박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도와주자’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성을 발휘해서 청장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청장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위법·위헌한 대통령의 지시에 항거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때 당시에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 포고령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뒤에 공공안전차장, 지금 정보 쪽에서 나온 분이 오부명 차장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아닙니다. 경비입니다.

○이상식 위원 경비고, 여기 정보 라인에서 나온 분 없어요?

박현수 경찰국장, 혹시 이 포고령 언제 봤습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저는 그 포고령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본 사실이 없어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예.

○이상식 위원 경찰청 심야 회의 때 이 포고령이 제시가 안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에는 제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도대체, 국회 통제라는 반헌법적인 그런 통제를 가하면서 이건 뭐…… 청장은 구두 지시 한마디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끝나고 나서 청장님도 법적 검토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그래서 국관들이 남아서 한번 법령 찾아보고 그때부터……

○이상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1시에 의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12시부터 회의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1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최소한 그 중간에라도 ‘이것은 위법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통제를 풀고 국회의원들이 입장하도록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실현이 됐다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엔 경찰이 한 번도 이제까지 역사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항상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찰도 힘이 생겼잖아요. 간부님들, 안 그렇습니까? 경찰도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고 물리력 집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장악하고 그 힘을 대통령이나 권력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만약에…… 어제 전화했는데 경찰 지금 완벽하게 차장님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뭐 장악이라는 말보다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상적인 업무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통령실로부터 다른 무슨 정황이 나온 건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조금 이따 본회의에 2차 계엄 시도에 관한 정황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저희들도……

○이상식 위원 그때는 분명하게, 지금도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차장님,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것은 지금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양부남 위원께서 나중의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 만약에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어느 기관에서든, 특히 국수본에서 체포영장을 받든지 긴급체포……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체포보다 체포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정당성이 더 있으니까—그걸 제시하면서 용산으로 간다? 저는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하시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미구에 곧 닥쳐올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지원이 오면……

○이상식 위원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따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경찰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해져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헌법과 법률에 맞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요 저도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부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 포고령 관련한 위법성과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느껴서 문제 제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문제 제기라기보다요 저도 그 당시에 좀 늦게, 한 11시 30분 정도에 입장을 했는데 당시 저는 경비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떨어져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도 최초에 진입을 막았다가 다시 풀었지 않습니까, 한 20분 정도. 그 와중에 포고령이라는 걸 우리도 찾아야 되겠다, 이것 되도록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포고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고 포고령을 저희들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언론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다소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청장께서는 선불리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게 몇 시 정도에 그랬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마 포고령에 근거를 해서 실제로 출입을 통제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른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경찰이 이번 계엄령 사태나 포고령 내용, 소위 말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해산권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불체포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과 법령을 혼동하거나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명백히 위헌, 명백히 위법한 그런 판단을…… 경찰에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저지선이 없었다?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계엄령 사태를 겪어서 다 학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은 누구나가 이 계엄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지선이 구축된 거예요.

그런데 법령을 집행하고 그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런 판단 하나를, 이런 문제 제기 하나가 없었다는 것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상식 위원님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차장께서 대단히 깊이 있게 알아듣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헌법에 대한 공부가 14만 경찰에게 정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경찰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수사기법이라든가 체포기법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장 존중해야 될 헌법과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공부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바로 검토해서, 시행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두 번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거부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압수수색이 저지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호처에서 안보시설 이유로 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정당한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적법한 집행하는 데 막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불법이지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심판문을 한번 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고 또 조사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탄핵의 주요한 사유로서 탄핵심판문에 지금 명기돼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 볼게요. 현재 탄핵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거기에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서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주요한 것이 당연히 존중해야 될 사법기관의 조사라든가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걸 거부한 사례는 이미 현재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 지금 명기돼 있다고요.

그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이 보류되거나 방해되거나 저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예요. 범법자예요. 현장에서 체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보안기관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진입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 신정훈 탄핵 사유라니까요.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당사자가 국가안보시설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수본부장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차장께서요, 물론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산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범법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가지고 법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습니다마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좀 나오세요.

경비안전계장은 지금……

경비안전계장, 발언대에 나올 때 그래도 예의를 갖춰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오실 때도 고개를 그렇게 뺏뺏이 쳐들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른 답변자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경고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궁심입니까? 다시 들어가 앉으세요.

○**이상식 위원** 저번에 서울청 국감 때도 질타를……

○**위원장 신정훈** 오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그렇게 경시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보여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한 경찰은 업무 집행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서울청 안전계장, 23시 07분에 말입니다. 22시 47분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통제를 했어요. 그랬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서울경찰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외에 다른 지시를 받은 적 없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 외에 지시받은 것은 그게 전후입니다마는 차장님들 연락해서 출근하시도록 해라……

○**위원장 신정훈** 이 조치에 대해서, 국회를 완전히 통제해라 이거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유일하게 서울청장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차벽을 설치하라는 것은 청장님 옆에서 다른부장님인가 차장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23시 07분,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 조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서울청장님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22시 33분, 다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해라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서울청장님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무전 기록상에는 서울청장은 23시 54분 이런 지시가 이 무전 기록에도 나옵니다. 서울청장으로부터의 어떤 기록은 안 나와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구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구두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구두로?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위원장 신정훈** 23시 33분하고 23시 54분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전망을 통해서 알려진 시기보다 20분 빨리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20분 빨리 집행된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무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무전을 하는 무전요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예, 청장님의 지시로 근무자들도 알아듣고 근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관련해서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받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받은 적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황세영 경비단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세영 경비단장이 이 자리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출석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불출석 사유도 없이 출석을 안 했는데 오다가 대통령실의 지시로 다시 차량을 돌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 정도로 지금 파탄에 빠뜨려 놓고 아직까지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인지 의심이 앞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 그걸 다시 좀 말씀드리고 국민의 12·3 계엄 진상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행안부차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차관, 계엄령 선포를 전후해서 장관과 통화하거나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10시 사오십분경에 장관께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11시 넘어서 리콜이 왔고 오래 통화는 안 했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위원장 신정훈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계엄령에 대해서 차관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계엄령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사무실로 와서 헌법은 찾아봤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 어떤 건의라든가 의견을 전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시간 멈춰 주시고, 최창복 경비안전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각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3시간 반을 더 버틴 후에야 계엄을 해제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된 문건도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 시간에 국회에서는 철수하던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재진입을 시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7명 정도가 밖에서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1시 46분경에 국회경비부대장이 ‘다시 지금 현 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 들어오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전계장이 ‘군 관련자 진입 조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둔한 지휘관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수방사 병력을 다시 국회로 진입시킨다는 것은 2차 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재진입시킨 것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용혜인 위원**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기억 못 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청장님일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혜인 위원** 서울청장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저희 등 뒤에 계셨습니다. 한 3m 정도 떨어져……

○**용혜인 위원** 그러면 구두로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윤석열이 ‘국회 하나 못 막냐’라는 질책을 하면서 결심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계엄군으로 국회를 진압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실 상황을 몰라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본회의장에 있는 저도 생각했었고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군인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다시 국회의 문을 열어 준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위원님, 바로 직전에 군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 지금 모이고 있다는 무전이 나옵니다. 아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용혜인 위원** 5분 전에 나갔던 군인들이 재진입한다는 경비부대장의 무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5분 동안 말 없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진입 허가하라고.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러니까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사이에 보면 국회에서 버스를 타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국민들과 의원들이 다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해서 저 내란수괴가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따를 것인가, 이미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라는 걱정들을 다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다시 군인한테 길을 열어 준 거라고요, 국회에 진입하는. 그 판단이 적절했느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용혜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무장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경비대장이 애초에 국회를 틀어막은 것 그리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군인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도 황당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군인들의 재진입을 경찰이 다시 허락한 것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 쿠데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을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한 것이고, 저는 경찰들 역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결정했던 것인지 끝까지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광범위한 규모로 많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울청 경비계장, 용혜인 위원님 말씀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군 관련자 진입 조치하는 그 결정, 상당히 간단한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요.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누군가가 그것……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요. 본인이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는데 최소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전화로 받든 아니면 다른 통신기록으로 받든 간에 기억이 나야 되는 내용이에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전화로 한 것이 아니고 등 뒤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황상 청장님이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위원장 신정훈 등 뒤에서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예, 제 앉아 있는 자리가 청장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한 3m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신정훈 본인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경비상황실입니다, 8층의. 집회관리상황실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잠깐만요, 멈춰 주세요.

수방사 대테러특임대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알고 계셔요, 계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상식적인 선으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테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국회가 테러를

진압할 공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방사 대테러특임대라고 지칭을 하고 수방사 관련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수방사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했다…… 그 당시에 국회는 난리였습니다. 헬기가 내리고 계엄군 280여 명이 헬기 동원해서 국회 경내 진입하고 진입하는 유리문 다 깨지고 충돌이 났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TV 보고 있지 않았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죄송하지만 저는 TV가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채현일 위원 그 상황을 몰랐어요, 국회 상황?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TV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채현일 위원 국회 상황을 몰랐냐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국회 앞에, 여기에 망을 친……

○채현일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계장님?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국회 경내의 상황은 몰랐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읽어 보셨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사후에 읽어 봤습니다.

○채현일 위원 거기에,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인가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붕괴시키는 괴물이다, 동의하세요?

○서울특별시경찰청경비안전계장 최창복 동의하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것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혼자만의 상상인 거예요. 그것을 경찰청, 특히 계장님은 서울청장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충실히 부화수행한 겁니다, 내란죄의 부화수행.

박현수 경찰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경찰국장님은 지금 이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채현일 위원 경찰국의 설립 취지가 뭐예요, 경찰국의 설립 취지?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기본적으로 경찰의 인사와 자치경찰 지원……

○채현일 위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그전에 이것 설립하면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었지요? 사상 초유의 총경회의가 있었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하고 권력을 경찰이 장악한다, 옛날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로 간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경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경찰국장 박현수 전에 이상민 장관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경찰국의 임무가 경찰을 장악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장관이 갖고 있던 그 당시 법령상의 어떤 권한들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자치경찰 지원 이런 업무에 저희는……

○채현일 위원 경찰국이 설치가 되고 행안부에 경찰국 되면서 경찰을, 경찰청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고 그러한 후유증이 이번에 여지없이 경찰청장·서울청장이 직전에 구속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국이 폐지되어야 되는 당연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장께서는 조금 전에 방첩사와 경찰, 소위 말하는 체포조 관련해서 실무자끼리 통화만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보고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느 때 몇 시에 했는지가 아직 파악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보 들어온 바에 따르면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당일 날 12월 3일 날 영등포서 경력 10명을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겁니다. 즉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서 영등포서 경력 10명이 주요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방첩사 인원을 대기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국회 앞 수소충전소라는 겁니다.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서 방첩사 인원을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가 선포되는 와중에 방첩사가 늦게 도착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요. 그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영등포서에 연락을 해서 10명의 인원이 체포조 목적으로 당일 날 12월 3일 날 국회 수소충전소 앞으로 출동했는지를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윤건영 위원 바로 지금 조치하시고, 뒤에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경찰 경력이 아무리 부당한 방첩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에 부화뇌동해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용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장님, 바로 확인해서 국회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능을 막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던 것은 실질적으로 경찰입니다, 그게 누구의 지시든 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경비안전계장을 비롯해서 실제로 그런 일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101단장—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분들이 현직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제 생각에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든 아니면 모르고 가담하든 아니면 지시에 따라 가담하든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무 정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하고요.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건영 위원 수사가 아무리 진행 중이더라도요,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눈 군인을 보호한 게 경찰입니다. 그 경찰을, 경찰 병력을 가동·운용했다면 책임을 정확하게 지셔야지요. 말로 책임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서울 한꺼번에, 다 경비부서만 관련돼 있어서 서울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위원 경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해서 수도 서울의 경비가 무너집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하여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게 공정이고 정의인 겁니다. 그게 비겁하지 않은 거고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차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하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국회경비단장이 어떻게 돼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경비대장은 지금 대기 발령됐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기 발령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장 신정훈 국회경비단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입니다. 거기를 지휘했던 서울청장이 있고 본청장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 이 서울청의 지휘망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당장 직무 정지를 내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무관 이상은 제가 정부 인사 결재권이 없어서, 인사권이. 그래서 지금……

○위원장 신정훈 우선 그러면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해 보세요, 의견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나오는 대로 사실 확인이 되면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인사……

○위원장 신정훈 조사 상황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지휘망 녹취록을 보고는 더 이상 저희 국회는 그 당사자가 이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국이 왜 있지요? 경찰국의 목적이 뭡니까? 경찰 인사 담당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행안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조치한 것 있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국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모경종 위원 예, 경찰 관련해서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직무대행한 이후로는 별도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시하거나.

○**모경종 위원** 경찰 인사를 담당한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인사를 담당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총경 이상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제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행안부는 손 놓고 있지요? 경찰국이 왜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바로 검토하십시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아직도 지금 인터넷상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망이 조작 가능하다, 윤석열이 주위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10% 넘게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0.74% 이상하다, 대선도 부정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된 대선도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국정원이 선관위에 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 지적하는 순간에 기존에 부정선거 이력이라든지 해킹 이력이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이야기하던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해킹, 결국은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해킹은.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모경종 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던 이번 국회의원선거, 총선 이전에 국정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리고 다 하자가 치유된 상태에서 총선이 이루어졌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22대 국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21대 총선이든 이전의 지방선거든 대통령선거든 부정선거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만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오신 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무총장님, 선관위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존엄을 잘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 김성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사이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할 텐데 저는 사이비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선거교가 있는데 조금 전에 부정선거교를 믿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씀 제가 좀 드렸고 이번에는 신앙촌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번에 수개표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수개표라기보다는 수검표를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수검표, 그러니까 다양한 표를 꼭 손으로 센 건데 그러면서 인원이 얼마나 더 추가됐습니까? 6만 4000명이었는데 12만 8000명으로 2배 증원하라고 요청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런 정도인지, 많이 집행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인원은 증가했는데 정확한 인원을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성희 위원** 하여튼 했습니다. 왜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민들한테 선거의 투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김성희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곤란한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문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국민의 힘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끊임없이 공문을 보내고 한 다섯 차례 정도 간담회, 토론회 등등도 하셨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또 이것도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관련 현안보고, 이런 것 보통 정당에 가서 하세요? 민주당에 와서 선거 관리 현안보고를 하신 적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들어와서 그래도 엄정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양쪽 정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쳐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여당에서 주문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걸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희 위원**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돼서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QR코드를 이 바코드로 바꾸고 이런 설명들을 해서 작성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성희 위원** 제가 이것 보고 실무자가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괴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QR코드가 해킹이 되니까 바코드로 해야 된다라고 가서 보고를 하시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선거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만 4000명이 12만 8000명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면 수작업 개표할 때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추가 재정이 한 64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대로 집행은 안 됐겠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결국 지난 총선 때 ‘이제는 다 수개표하니까 안심하시고 사전투표 하시라’라는 독려를 할 정도로 대규모 신앙생활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김용빈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계엄 선포 후에 선관위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450여 명의 계엄군이 간 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란과수 윤석열의 12·12 국민 대우통 담화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앞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죽 나열하고 나서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관위를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고 모든 기관이 다 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을 내세워서 완강히 거부했다. 그런데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해서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당시 그 부분은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저희가 기밀을 유지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관련 정보는 국정원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해킹 가능성이나 보안조치 미흡 등에 대한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해킹 가능성을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보안 대책 일부를 낫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보안조치를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경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이 검수하는 과정,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저희가 협조를 하지 않고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해킹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뚫릴 수가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박정현 위원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12345 식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조치가 미흡한 건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바꿨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완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지금은 보완이 돼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거형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정현 위원 2024년 4월 총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이 안 됐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말인 거지요? 개선이 다 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국정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로부터 상당한 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22대 국선 준비를 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위성곤 위원 대통령께서 관련 담화문 발표하셨는데 담화문을 한번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방송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송 본 게 아니라 전문을 다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방송으로 처음부터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송으로만 들으셨고요. 꼭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청 직무대행님은 읽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좀 가볍게 한번 읽어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 입장하고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웠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 통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위성곤 위원 서울청장 직무대행님은 어떻습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저는 따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아직도 읽어 보지 않았어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저도 지금 직무대행을 막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 위성곤 위원 포고문은 보셨어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포고문은 봤습니다. 포고령 말씀이시지요?
- 위성곤 위원 포고령은 보시고?
- 서울특별시경찰청장직무대행 최현석 예.
- 위성곤 위원 읽어 보시고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부청장님은?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저도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 위성곤 위원 어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현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성곤 위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7기동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27기동대장, 기동대는 언제 여의도에 파견됐습니까?
-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저희들은 최초 배치는 19시 30분에 배치돼서 전장연 집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위성곤 위원 그리고……
-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국회는 22시 30분경 최초 3문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배치는 22시 50분……
- 위성곤 위원 왜 전장연 집회가 이미 끝났는데, 전장연 집회가 끝난 시기가 언제지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전장연이 그날 1박 2일 유숙집회가 있어서 국회의사당 대합실에서 유숙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집회가 종료됐다고, 여기 보면 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관련해서 종료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몇 시에 하냐면 18시 21분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집회 종료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왜 대기를 하신 거예요?
-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집회는 종료를 하고 문화제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었고요. 21시 30분경에 문화제가 끝나서 그중의 일부가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1박 2일 유숙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 4개 기동대가 그 유숙을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 위성곤 위원 비상계엄에 대한 인지 시간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예요?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제가 21시 30분경에 직원들 대합실에 배치하고 올라오니까 저희 직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이후에 3문 경비를 담당을 했지요?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예.

○**위성곤 위원** 그 지시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지시에만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

그 과정 안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하고 지휘부 지시밖에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도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의견을 왜 반영 안 했어요?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비상계엄이 발표됐고 지휘부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 있는 시위대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와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적인 판단을 저희가 그 현장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보거나 그래서 언론 뉴스를 접했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저희 직원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 4일 날 09시 35분……

○**위성곤 위원** 아니요, 그다음 날 아침이 아니라 20시 28분에서 다음 날 01시 01분까지 휴대폰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제27기동대장 정동실** 예,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볼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석열이 발표한 것을 보면, 12월 12일 날 담화문에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었던 내용으로 선관위에 대한 부분을 한참 넣었습니다. 왜 선관위는 대통령을 이런 의혹에 있어서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만들어야 될 만큼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은 언급한 그 내용 부분 대부분이 작년에 국정원 컨설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 대통령이 잘 몰랐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차에 걸쳐서 국정원에서 확인 조치까지 시행한 사안이라서 저희들은 따로……

○이광희 위원 윤석열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5개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해킹이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두 번째, 선관위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 거부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광희 위원 세 번째는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고 비번도 12345처럼 너무나 쉽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부는, 그러니까 비번 같은 것은 맞고요. 보안 부분은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네 번째는 선관위의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미 한 적도 있지요?

다섯 번째는 2024년 4월 총선 앞두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개선했는지 알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은 감사원에서 확인 조치까지 취한 상황입니다.

○이광희 위원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엄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왜 설득하지 못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짜 뉴스에 대한,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만 계속 보다가 이렇게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안 하신 겁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이광희 위원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개인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적이 없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나 선거 자유방해죄로는 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 이광희 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번에 은평구 그때도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규정을……

○ 이광희 위원 저희들이 가본 바대로 불가능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나 그다음에 선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 처벌 규정을 신설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앞으로 어느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동감합니다.

○ 이광희 위원 이에 대해서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가 혹은 선관위가 필요하면 선관위가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입법 과정에 의원님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차관님, 12월 3일 날 행안부장관님 행적이 좀 한 2시간 정도 묘연해요. 울산의 회의에 가셨다가 서울역에 도착한 게 20시 4분 정도로 저희들은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대통령실로 갔다고 돼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난번 행안위 때……

○**이상식 위원** 대통령실 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상식 위원** 가서 그러면 계엄 포고가,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가 한 10시 30분 정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23분, 24분 정도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 정도. 그러면 2시간 가까이 거기서, 대통령실에 계속 계셨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난번 행안위 때도 장관이 10시 40분쯤에 도착해서 계속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통령실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상식 위원** 저는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행안부장관이 뭘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대통령하고 따로 만나서 무슨 면담을 하고 했는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건의권자 2명 중에 한 분이고 또 이번에 계엄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군하고 경찰이 담당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이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의 행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재빨리 사의를 제출하고 대통령은 또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얼른 또 사의를 수리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민간인이 돼 가지고 지금 이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지요.

이거 한번 차관님이나 비서실이나 누구 접촉해 가지고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10분 단위 정도로 뭘 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난번 제 기억에 행안위 말씀 중에는 따로 대통령을 만났다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이번에 선관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선관위 침탈이 있었다고 밝히신 다음에 또 신속하게 무슨 의사 표명을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침탈을 당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그다음에 또 어제 대통령 2차 담화 이후에는 이거 자기부정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계를 좀 더 거꾸로 올리면 저는 한 번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4월 10일 총선 전에 윤석열이 24차례 정도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예산을 수백 조를 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그게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무슨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가지고 경찰이 결국 무혐의 송치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상식 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지 몰라도 선관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지금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이나 선거관리위원장께서 법관 출신이고 또 현직 법관이시기 때문에 사법심사 자체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선관위도 우리 지금 말하는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 대해서 선관위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가치가 엄정중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은 같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규제하는 데 약간의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립이라는 것이 위헌이고 위법한데 꼭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선거관리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쳤는데요. 저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 특히 국힘당의 공정 선거 운운하는 그 위원회에서 선관위를 괴롭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요구와 추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외에도 이런 괴담과 거의 주술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여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에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특히 대법원 판사들이 중앙선관위원회장을 맡고 있어서 압수 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지 대통령 생각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 특히 여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의 조직, 중앙선관위원회장을 법관이 맡고 있고 지방 선관위원회를 또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도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에 법관이 겸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누가, 김민전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6월 달 부산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언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또 이 중앙선관위 문제를 제기해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많은 방통위의 김태규 위원장입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중앙선관위는 지금 전부 법관이 맡고 있는데 이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선관위원회의 상근직이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내세우면서 지방법원장 또 대법관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회에 비상근 선관위원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하면 법관의 선관위원회 겸직은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선관위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관위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 받은 사실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장 신정훈** 아니, 법안뿐만 아니라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부 여당에서 그런 관련한 질의와 자료 요구를 해 온 적이 있었고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었지요? 선관위 위원장의 상근직화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근데 그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도 상임위원 외부 괴담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국감에서도 지적 이 됐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보고서상에……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제가 감사원, 권익위, 정부 여당인 국힘, 대통령실, 이게 지금 괴담 수준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전 정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결산보고서 부대의견에, 행안위 부대의견에 있었던 사안이라서요. 제가 무슨 어떤 당이 이걸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제가 행안위 부대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도 선관위에 지속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있었던 걸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권익위 부위원장, 현 방통위원장이 제기했던 선관위, 권익위가 얼마만큼 선관위하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선관위 상근직 바꿔야 된다. 법관들이 맡고 있는 위원장 자리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2025년도 선관위 예산도 평상시 선관위 예산보다 100억 이상이 지금 깎였지요? 확인만 해 주세요. 107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게 비선거시기이기 때문에 선거 경비를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107억 깎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이번 계엄령 사태가 그냥 순간적인 돌발 사태가 아니라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집단이 아까 우리 김성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야말로 신앙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에서부터 지금 출발해 가지고 지속되고 조직적으로 되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 괴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담화문에 실린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모경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윤건영 위원 10초만 할게요.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윤건영입니다. 앞서 영등포서 경력 10명이 출동을 해서 방첩사 20명하고 3인 1조 해서 10개조를 가동하려고 했다. 10명 출동했는지 위원장님 확인 부탁드리고요.

가짜 출근 관련해서 교통 무전 녹취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저는 질의 살짝.....

○위원장 신정훈 예.

○김성희 위원 그 아까 신앙촌 얘기 마무리 못 지어서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읽을 테니까, 김기현 의원의 주장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시스템이 해킹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선거관리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인데 민주당 정권이 선거 결과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투표는 전자투표인가요, 아니면 실물 도장 찍는 표 투표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물 투표이고 전자장비는 보조장치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그게 관련돼서 혹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계표 결과가 달라져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던 적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전부 다 기각됐군요.

그다음에 오늘 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번 출마하셨던 것 같은데 이수정 교수님이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계엄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하고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가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문드리기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지금 서버하고 시스템을 또 민주당에서 구입한 거라 이재명의 뇌물성 대북 송금한 쌍방울이 지금 지배하는 서버 관리업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서버를 장악하면 선거 부정을……

서버 관리업체가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그 국정원 컨설팅 당시에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나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성희 위원 그러면 쌍방울이 지배하는 업체가 지금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대북 송금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런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부끄러운 질문이었고 답변도 되게 곤란하셨을 텐데 여하튼 구성원들이 이렇게 믿고 대통령이 같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계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노렸다는 점에서 선관위 제도 정비할 지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우리가 도장 찍어서 하는 투표를 부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정말 상식적인 고민들은 그만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특수단이 가서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와 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아직도 14만 경찰을 믿고 있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믿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믿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수사 철저하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관련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충실히 임하고 핸드폰을 바꾼다는 등의 여러 가지 피해 가는 일들을 하지 않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리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우리 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지금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윤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충전소 쪽에 한 10명 넘게 영등포 형사가 있던 건 사실이고요. 영등포 형사과장 얘기에 따르면 00시 17분경 국회의 수소충전소가 뚫린다고 해서 그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건영 위원 수소충전소가 뚫리는 게 아니라 방첩사 20명하고 경찰 경력 10명하고 해서 3인 1조 체포조로 운영된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기남부청장님.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위원장 신정훈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지요?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김준영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우리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려다 숨이 막혀 가지고, 아니면 보고 있는 국민들 부끄러워서 말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정부,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국민들 앞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3차 담화문, 1·2·3차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국회를 완전히 반국가 세력의 온상으로, 괴물로 표현하고 있고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의 계엄령은 이런 비상식적인 거의 망상에 가까운 주술과 괴담에 근거해서 저질러진 내란입니다. 형편없이 수준이 낮은 내란이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차 담화문 내용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대통령 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릅니다만 정신 상태를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 1초라도 현 상태에서 정부가 진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외교에 치명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경찰청이나 행안부·선관위가 이번 계엄령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내는 것이 이 쿠데타에 대한 반성의 표시이고 또 쿠데타의

정국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치유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 여당에게,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절히 또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국회가 짓밟힌 이 행위에 대해서 정말 국회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범죄만큼이나 국회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라도 이 계엄령 내란 음모 특검이라든가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제기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배석하신 정부 관계자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여겨 주시고 조치할 사항을 즉각 조치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성희 모경종 박정현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의정관 김한수

경찰국장 박현수

정책기획관 임철언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획조정관 도준수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경비국장 임정주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최현석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기동본부장 고범석
제27기동대장 정동실
경기도남부경찰청
청장 김준영
과천경찰서
서장 문진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정보보호과장 장병호